

서 면 질 문 요 약 서

□ 총 건수 : 1명, 5건(서면 질문/답변 1명 5건)

의 원	질 문 제 목	답변	담당 부서
성준모 (5)	1. 신길온천역 앞 개발과 관련하여 2. 선부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 3. 수돗물 불소사용과 관련하여 4. 90블럭 학교부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 5. 안산 그리너스 축구단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 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	

2017.12.15.(금) 10:00
안산시의회 본회의장

제245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 정 질 문 답 변 서
〔서면답변〕

＜ 서면 질문 : 1의원 5건 ＞

○ 성준모 의원 : 5건



안 산 시

□ 성준모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신길온천역 앞 개발”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신길온천역 앞 개발과 관련하여

- 신길온천은 故 정장출이 온천발견 신고하여 1993. 7. 12.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이후,
- 1993. 9. 10.에 온천지구 지정승인을 신청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이며 시화지구개발사업 추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불가 되고,
 - 2000. 10. 26. 온천공보호구역을 신청하였으나 감사원 감사 결과, 온천공보호구역지정 및 온천개발 사업 추진에 대한 중단 처분지시가 있어 불가 되며,
 - 2002. 4. 3. 경기도에 신길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건의하였지만,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자 (故 정장출)의 소유 토지가 없는 사유 등으로 반려되고,

- 2005. 12. 8. 온천발견신고자가 사망한 후 (주소혼
개발에서 2013. 8. 2.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하였으나, 온천우선권자의 지위를 확보하지 못한
사유로 반려되었습니다.

○ 위와 같이 수차례 온천지구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을
신청하였지만 온천발견신고 수리된 자의 소유 토지가
없고, 온천우선이용권자의 지위 미확보 등의 사유로
불가 또는 반려되어 현재 온천발견 신고의 수리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신길온천은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고 국토교통부
소유의 도로부지에 위치하고 있어, 「온천법」에 따라
온천발견신고의 수리를 취소하고자 행정안전부에
관원 질의한 결과, 취소가 불가하다는 의견으로
회신되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등 취소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신길온천과 같이 온천우선이용권자가 없는
온천공의 경우, 온천발견신고자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없으며, 토지주가 온천굴착 및 온천을 개발할 수 있어
안산시에서는 온천부존자원여부 확인 및 신길동
안산시 소유 토지의 개발계획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
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원질의>

○ 질의내용

- 1993. 7. 12. 온천발견신고 수리 후, 「구 온천법」(2010. 2. 4. 법률 10005호 개정 이전)에 따라 온천지구지정 및 온천공보호구역을 신청하였지만 불가 또는 반려된 상태에서,
- 「온천법」(2010. 2. 4. 법률 10005호 개정된 것)으로 온천공보호구역지정 신청을 하여 반려되었을 경우, 같은 법 제21조제4항제3호에 의해 취소가 가능한 지?

○ 답변내용

- 「온천법」(2010. 2. 4. 법률 제10005호로 개정된 것)부칙 제3조는 위 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리된 온천발견 신고 중 온천공보호구역 지정승인 신청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안에 적용되며,
-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온천지구지정을 신청하여 불가회신을 하였음이 인정되어 「온천법」 제21조4항제3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성준모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선부종합사회 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문 요지 >

- ‘선부복지관 이전 신축과 관련하여’에 대한 답변

- 선부종합사회복지관은 선부동 13단지 영구임대 아파트내 관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산시가 LH 한국토지주택공사로 부터 향후 2032년까지 무상 임대하여 사용중에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기독교 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에 위탁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 동 시설은 1993.2.13. 개소한 이래 시설이 노후화 되고 면적이 협소하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향후 아파트 재건축등 주변지역의 복지 수요 변동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현재 입지와 규모의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따라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우선 현재의 건물을 증축내지 리모델링

하여 복지관 활용공간을 확장하는 방안에 대하여 13
단지와 인근 아파트 재건축 상황을 주시하면서
소유권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아울러, 다른 장소로 이전 신축하는 방안에 대하
여는 장래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의 욕구 조사를 통해
후보지를 선정하고 도시계획 및 토지이용 상황등
부서간 검토와 협의를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무엇보다 주민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선부종합복지관 현황>

위탁기간	수탁법인	시설현황	시설장	종사자수	비고
5년 2014. 2.20.~ 2019. 2.19	사회복지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복지재단	1,143.04㎡, (지상2층)	황인득 관장	11명	

□ 성준모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수돗물불소 사용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산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은 시민의 총치예방을 위하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업무주체 (현직업무)	정수장	급수지역	운영 상태	응용 인구	약품명	시작 년도
상록수보전소 (반월정수장)	반월 정수장	인산동·현부곡동·바월동·오 이동·동곡동·피동·본오 성포동·월피동·본오 1.2.3동	정운영 상운영	732,512명	불화 규산	2000년
단원보전소 (상화수도 사업소)	인산 정수장 연성 정수장	북정동·와동·고잔동· 천안동·사동·사이동· 해안동·신길동·초지동· 북1·2동·원곡동·백 성산동·부동·반월산단·시 성산대시	일 중 단 상 영			

○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이 전국적으로 2014년 22개, 2016년 14개, 2017년 10개 지자체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인산시는 경기도에서 유일한 수불사업 지역으로 시민들의 불소투입 반대 민원제기 등으로 2018년에는 공청회 및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이에 학술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청취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방향 등의 대책 마련을 강구하겠습니다.

- 성준모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90블록 학교 부지 무상공급과 관련하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 역점사업인 사동90블록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학교용지 공급방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안산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브랜드 향상을 위해 2007년 개발방안에 대한 자유공모를 실시, GS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으며, 2008년 3월 GS건설컨소시엄과 기본협약을, 2016년 1월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이후 토지매각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지위를 협상 대상자인 GS건설컨소시엄으로 규정하였으며,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GS건설컨소시엄이 안산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시행자가 되어 추진하였습니다.

- 이어 2016년 6월 20일 당 사업 부지를 8,012억 원에 매각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계획도 승인한 바 있습니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수반되는 학교설립 건에 대하여 2013년 1월 안산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자로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 1개 부지를 포함하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고시하였으나,
- 2016년 경기도 교육청은 기존 지구단위계획 결정시 협의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학생 수 감소 및 교육재정 악화 등의 이유를 들며 초등학교의 면적을 늘리고, 중학교는 유보하며, 고등학교는 폐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이에 마이스산업과는 기존 학교용지 존치를 위해 수차례 교육청을 방문, 협의를 통하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를 존치시킬 수 있었습니다.

- 이후 2016년 8월 2일 경기도교육청이, “안산시가 실질적인 개발사업시행자이며, 학교용지는 무상공급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행정해석을 통보한 이후, 마이스산업과에서는 사동90블록 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법률검토 내용들을 교육청과 교육부로 직접 전달했으나,
- 그동안 교육부는 “안산시를 실질적 개발사업 시행자에서 공동 개발사업 시행자로 본다.”는 약간의 의견 변화만 있었을 뿐, “안산시가 학교용지를 부담해야 된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 또한 우리시와 교육청은 2017년 4월 “2020년 3월 초등학교 개교에 문제가 없도록 ‘법제처 법령해석’과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2017년 12월까지 상호 수용”하는 내용의 협의를 한 이후, 안산시는 2차 분양한 1구역에 대해서 ‘조건부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 2017년 4월 인산시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법제처는 2017년 8월 ‘주택개발사업에 대하여 두 기관이 주장하는 객관적 사실 다름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 법령해석을 ‘반려’ 하였습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 반려 이후 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의견을 다시 한 번 교육청에 요청하였으나, “개발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부 행정해석으로 갈음하고,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으로 공급해야 하며, 소송을 조건으로 하는 학교설립은 추진할 수 없다.”는 공문을 보내온 것입니다.

○ 또한 우리시는 정부법무공단 등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주택법」에 의해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 피에프브이’가 사업시행자이므로, 학교용지는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사항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개발사업시행자’는 300가구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방자치단체일 경우에는 학교용지와 학교시설을 무상 공급하고, 민간일 경우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유상 공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우리시는 “해당 부지의 사업자는 「주택법」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민간사업자인 사동90블록피에프브이며, 학교용지는 민간사업자가 유상으로 교육청에 공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청은 우리시와 사전 협의도 없이 2017년 6월 교육부에 수시1차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였으며, 2017년 8월 안산시가 학교용지 무상공급 협의이행을 조건부로 한 가칭 ‘안산1초등학교’안이 통과된 상황입니다.

- 현재까지 학교용지 유·무상 공급에 관한 최종 법적 판단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법적 해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 우리 시가 유상공급 의견을 지속적으로 견지하며 소송을 진행할 경우, 승소하더라도 소송기간이나 교육부 중앙투자 재심사 기간 등을 고려할 때 2020년 3월 개교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립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여러 제반 여건들을 감안하였을 때, 결국 소송을 전제로 한 학교설립 추진방법은 추진이 곤란하여, 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법적판단은 보류하고,
- 2020년 3월 개교의 유일한 방법은 교육청이 요구한 시가 개발사업시행자로, 학교용지 및 시설을 무상공급 하는 위·수탁 협약안을 교육청과 협의, 법률검토, 의회 의결을 통해 가능한 2017년 12월 중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 지난 11월 13일에는 안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학교 건립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12월 중으로 중앙재정특자심사 제외 협의를 마무리하고, 교육청과 학교시설공사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공사설계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018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학교 건립 예산을 반영하고, 현 PEV 소유의 초등학교 용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 향후 학교 공사 진행사항을 감안하여,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조정, 감사원 감사, 사업시행자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등을 통해 인건비가 개발사업시행자가 아님을 입증하여 시 재정 투입분에 대한 회수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 성준모 의원님께서 다섯 번째 질문하신 “안산 그리너스 축구단 사단법인을 재단법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시민화합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와 청소년의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갈 수 있는 스포츠 도시 조성을 위해 시민의 염원을 담아 2017년 1월 시민프로축구단인 안산그리너스를 창단하였습니다.
- 안산시민 프로축구단은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의 장점인 지정기부단체 승인 및 자율성, 독립성 보장 등 우리 시 재정부담 최소화 등으로 사단법인 형태로 축구단을 창단하게 되었습니다.
- 창단 첫째 주요성과로는
 - ▶ 시민축구단은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사랑나눔상”을 수상하였으며, 전년대비 관중증가율이 가장 큰 구단에게 수여하는 “플러스 스타디움상”을 수상하는 등 명실공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구단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 또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구단운영을 위하여 제반규정 등을 신설 및 개정하고 선수선발위원회 구성, 중장기운영계획 등을 수립하여 내실을 기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시민구단 조기 정착 및 자생구단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사단법인 형태의 자율성 및 독립성의 한계로 행정기관의 관리감독 권한의 한계점이 대두되었으며, 최근 경기침체 등 어려워진 국내외 사정으로 후원 및 광고수입 등 수익사업이 크게 감소될 것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성준모 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바와 같이 안정적인 구단 운영 및 관리감독의 체계화를 위해 재단법인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성준모 의원님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